

이슈브리핑 vol.319 2025년 4월

ISSUE BRIEFING



#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청 설립방안

연구책임 김시백 책임연구위원

요약

국내 기업 유치 한계로 최근 타 시도에서는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서울은 해외 기업 유치, 경남은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외국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 전담, 대전은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을 구축함
-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 기획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흔히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복합 업무 기관으로 전환되고 있음

- 지역이나 도시 수준에서 투자유치 목적의 기관이 설립되어 전 세계에 약 2,000여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전담기구는 기업 유치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직간접투자, 해외 유학생 및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기능까지 포괄하는 기관으로 설립 및 운영 필요

- 전담기구 설립으로 기회발전특구,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 및 운영을 통해 유치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음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본 유치의 전담기관 설립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 확보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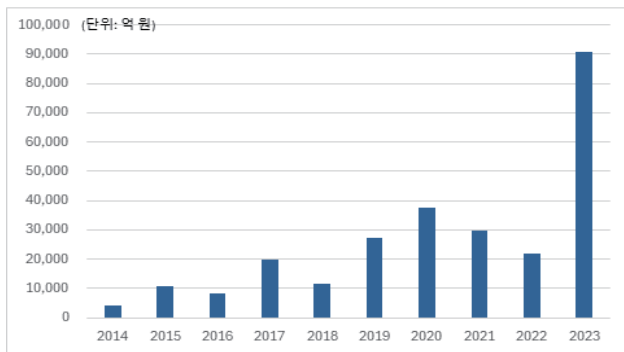
- 투자청 설립으로 ① 투자유치 관련 행정 편의성 제고, ② 기업 유치와 공간 개발의 연계성 강화, ③ 한인비즈니스대회 후속 효과 강화, ④ 민간 주도의 PF 사업 활성화, ⑤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 ⑥ 금융 투자 생태계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키워드** 투자유치 전담기구(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복투자청, 기업 유치, 인프라 투자

# I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필요성

## 1. 투자유치 경쟁의 시대

-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들어서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이차전지 산업의 붐과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성장을 위한 재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됨
  - 새만금 내부 용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및 전북특별자치도로의 기업 유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전북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적용이 2025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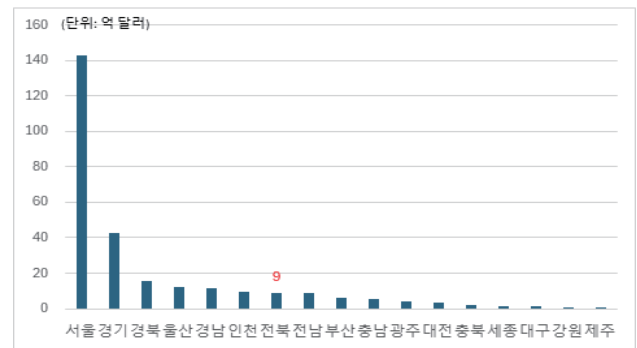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그림 1〉 전북특별자치도 투자협약 규모

- 위 수치는 협약(MOU) 단계에 있는 투자 계획 상의 투자 금액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실제 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과거 국내 모 대기업이 새만금에 7조원 가량을 투자하여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5년 후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새만금으로의 투자 여력이 없어 투자 철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 협약 단계 이후 실제 투자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로의 투자 협약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 규모는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쳐, 투자유치의 대상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넓혀 자본 유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동향(신고기준)」

〈그림 2〉 2023년 시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 한정된 국내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타 시도에서는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서울은 해외 기업 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경남은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외국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대전은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을 구축함

○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을 지역 개발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을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자본 유치 역량이 중요하게 됨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출자금을 마중물로 하여 지역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투자 구조를 기획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임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으로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LNG 수송선에서 국가산업단지로 LNG를 저장·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그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국가가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함

## 2.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는 자생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며, 특히 성장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

### ※ 투자의 기본 개념

- 일반적으로 투자란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의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경제학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동 이외의 재화 특히 생산설비 등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의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하여 사용
- ‘직접 투자’는 기업이 생산량이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직접 공장이나 자회사를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기존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M&A형 투자로 구분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유치가 이에 해당됨
- ‘간접 투자’는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이 만든 금융상품을 통해 기업이나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벤처 캐피탈, 성장자본투자, 인프라펀드 등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 유치가 이에 해당됨

○ 해외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투자유치 성과는 지역 경제 관련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FDI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 규모가 백만불 증가할 경우, 외국인 수는 신고금액 기준 11.6명, 도착금액 기준 12.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투자유치가 국가는 물론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sup>1)</sup>

- FDI, 경제활동인구 등 지역 경제 환경과 관련된 변수들과 외국인 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FDI 금액,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외국인 수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실업자 수와 고용률은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 김양중 외 2인(2015)

-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역의 산업고도화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주기 때문에 국내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외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제도적 기반 정비와 투자지원제도 개선, 특히 외국인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투자유인책이 된다고 주장함

○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로 중소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큰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여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sup>2)</sup>

-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의 중간재 공급업자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투자 및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후방 연계 관계가 중간재 공급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등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외투 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연쇄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3. 국내외 투자유치 경쟁시대에 대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과제

○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지역에서 끌어들이 수 있는 공공 재정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 만으로는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함

○ 인구 소멸 및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에 대응해야 하며, 이는 비단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및 산업 진흥에 국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어야 함

2) 최혜린 외 3인(2015)

- 최근 중앙정부의 4대 특구(기획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는 중앙 정부는 지정권과 일부의 지원 사업만을 약속한 채 기업 및 투자자금 유치는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 역시 재정투자사업을 지양하고 민관합동 금융투자모델을 적용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표 1〉 지역개발사업의 투자구조

사업 방식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사업 유형	
	계획 입안	재원 조달	설계·건설	운영		
재정투자사업	공공	공공	공공	공공	-	
공모형 PF 사업	분양형	공공/민간	공공/민간	공공/민간	민간	역세권개발, 주택단지, 리조트,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식산업센터
	수익 임대형	공공/민간	공공/민간	공공/민간	공공/민간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호텔, 리조트, 상가, 관광시설
민간투자사업	수익형	공공	민간	민간	민간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하수처리장 등
	임대형	공공	민간	민간	민간	학교, 문화·체육·관광시설, 기숙사, 하수관거 등

출처 : 최지은(2024),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지방공투의 역할

○ 기존에는 공공이 계획 수립부터 재원조달, 운영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도하였는데, 이제는 정부의 권한 축소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계획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

# II 투자유치 전담기구 설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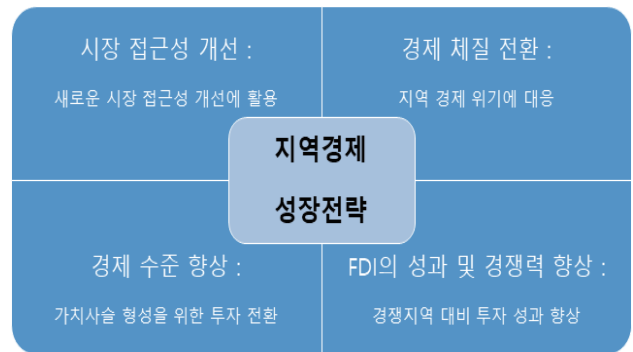
## 1.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정의

- 투자유치 전담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기관을 일컫는 국제적 용어로 통상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혹은 지자체 기관을 의미함
  -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글로벌 FDI가 급증한 200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설립됨
  - 최근에는 지역이나 도시 수준에서 투자유치 목적의 기관이 설립되어 전 세계에 약 2,000여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김목한 외 3인, 2022 재인용)

〈표 2〉 지역 및 도시 수준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사례

구분	기관명	국가
대도시 권역	Copenhagen Capacity	덴마크
	Invest in Bogota	콜롬비아
	Invest HK	홍콩
	Toronto Global	캐나다
주/도 권역	InvestKL	말레이시아
	Catalonia Trade & Investment	스페인
	Invest Minas	브라질
	Invest Ontario	캐나다
	Invest Pacific	콜롬비아
	InvestPenang	말레이시아
	Invest in the West Midlands	영국
	Maharashtr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인도
	One Columbus	미국
Wesgrp	남아프리카공화국	

- 실제로 지역 및 도시 수준의 투자유치 전담기관들이 설립된 지역은 FDI 유치가 지역 경제 성장 전략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 지역 단위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설립 목적

-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기능은 World Bank와 OECD 등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무 지침서를 제공하여 정립되어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주요 기능 및 사업

구분	목적	주요 사업
이미지 형성	•해당 지역을 투자목적지로 알리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김	•웹사이트 •홍보물 •해외 이벤트 참석 •해외 고위직 참석 행사 개최
투자 생성	•해외투자자와 접촉하여 해당 지역에 투자하게 설득함	•원자료 분석 •시장연구 •문의/요청사항 처리 •해외업종/투자자별 행사 개최 •투자자와의 일대일 회의 주선 •국내외 업종별 행사 참석
투자 촉진 및 유지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촉진하고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여 후속 투자를 창출함	•현장 방문 주선 •업무회의 주선 및 참석 •지역업체/고객 관련 정보 제공

구분	목적	주요 사업
정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인식을 모니터링하여 투자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를 제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위 추적</li> <li>민간부문이나 협회와의 회의</li> <li>수상/대통령 혹은 타기관과의 회의</li> <li>투자환경 관련 범부처 테스크포스/위원회 참석</li> <li>민간부문과의 정례회의 참여</li> </ul>

-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흔히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복합 업무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구상하는 투자유치 전담기구는 기업 유치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직간접투자를 유치하는 기능까지 포괄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기구로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함

- 해외 유학생을 위한 온라인 안내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 및 지역 커뮤니티 상권 활성화
- 런던시 광역 관광 전략 수립 및 대규모 국제 회의 및 이벤트 유치
- 런던 브랜드 및 홍보 전략 수립 및 시행



출처 : London&Partners(2023)

〈그림 4〉 London&Partners 주요 성과(2011~2023)

## 2. 해외 사례

### » London & Partners

- London & Partners는 런던시의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2011년에 창립한 시장 직속 기관으로 런던시가 국제교류, 투자 및 국제회의 등의 분야에서 국제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유치기관, 유학생유치기관, 런던 관광마케팅기구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업무를 이전 하였으며, 비영리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London & Partners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및 지역 기업 성장 지원
  - 지역 기업의 수출 지원 및 혁신 시스템 구축

- London & Partners는 약 200명 내외로 구성되어 런던 외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및 8개 지역에 총 1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000억원의 예산 중에 65%는 런던시가, 나머지는 자체 수입 및 민간투자 금액 등으로 구성됨
- London & Partners는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런던시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옴
  - 2011년 창립 이후 2,490여 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였고 3,025개의 국제 이벤트를 개최하여 89,000여개의 일자리와 34억 파운드(원화 5조 9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옴

» Berlin Partner

- 베를린은 2013년에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외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베를린 파트너’를 설립하여 민간기업(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전체 지분의 60% 이상을 베를린 투자은행과 베를린 기술재단이 소유하고 있어 공공 성격을 가지고 있음
- Berlin Partner는 투자 촉진, 베를린 기반 기업의 성장 지원, 대내외적인 홍보, 과학기술과 경제의 통합화 및 기술이전 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과 창업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베를린의 중소기업 및 산업체의 발전 지원
  - 베를린에 정착한 투자기업 지원
  - 과학과 경제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과 기술이전 촉진 및 강화
  - 베를린 마케팅 총괄
  - 부동산, 자금 조달, 금융 등 프로젝트를 위한 서비스 제공
- Berlin Partner는 약 200명 내외로 구성되어 베를린의 5개 산업클러스터 전략 산업에 초점을 맞춰 5개 부서로 운영 중임
- 2020년 기준으로 총 262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223개의 기업 유치, 6,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8억 7,280만 유로(한화 1조 3,100억원) 투자유치 및 1억 1,620만 유로(한화 1,745만원) 펀드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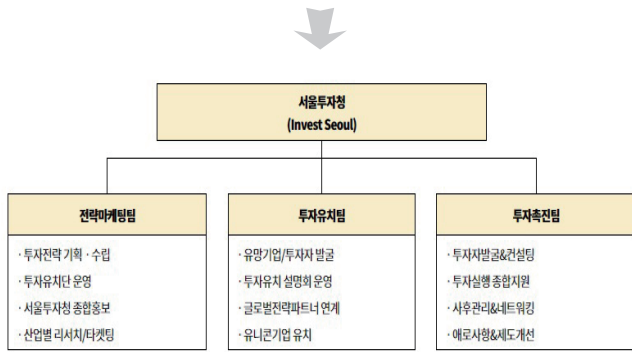
3. 국내 사례

» Invest 서울

- 서울특별시의 투자유치 지원기능을 담당하던 서울 산업진흥원 산하 ‘인베스트서울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서울투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5년에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임
- 2022년 2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현재는 서울경제진흥원 내 본부 성격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3개팀(투자전략, 투자마케팅, 글로벌기업지원) 19명으로 구성됨
  - 실질적인 기업 유치 업무는 Invest 서울에서 추진하고 서울시는 Invest 서울의 관리 및 협업, 총괄 업무, 보조금 지원 업무만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Invest 서울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Invest 서울은 해외의 투자유치 전담기관과 유사하게 해외 기업 유치 및 국내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유치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음
  - 향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관련 기금 조성 및 직접투자 등의 역할 확대를 꾀할 계획임
- 출범 이후, 넷플릭스 자회사인 아이라인스튜디오스 등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서울에 근거지를 둔 벤처 기업 중 투자 유망기업으로서 CORE100을 선정하여 FDI 유치에 집중하고 있음

기존 인베스트서울센터
투자마케팅팀
- 투자설명회 지원 - 투자협력네트워크 발굴 -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투자창업지원팀
- 단계별 맞춤지원 - 외국인투자창업 기반강화 - 센터시설관리 등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그림 5> Invest 서울 조직체계

## ▶▶ 경남투자청

○ 경남투자청은 투자운영팀, 국내유치팀, 해외 유치팀으로 3팀 12명의 민간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 투자상담과 소규모 자체 설명회, 잠재투자기업 네트워크 형성 등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하며, 기업투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역할을 함
- 특히 항공우주와 관광 등 특화산업에 대한 기업유치를 통해 균형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외기업 투자유치에도 집중할 계획임

○ 경남투자청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2022년 7월부터 민선8기 도정 출범과 함께 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 투자유치 기능을 추가해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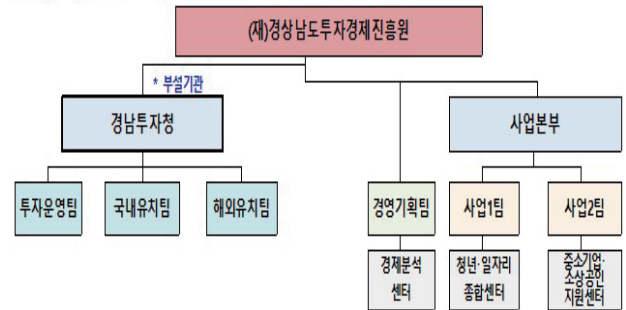
○ 경남투자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투자유치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경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가능 부지 정보 관리 및 플랫폼 개발

- 국내외 우수기업 신규 및 증액 투자유치
- 국내외 기업 대상 도내 기업 브랜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SNS 등 매체 개설 및 운영
- COEX, CECO 등 컨벤션 내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및 IR
- 국내외 소재 기관과의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운영

○ 경남투자청 설립 이후 2023년에 6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4년 5월 개최된 투자유치 로드쇼를 포함해 6조 1,707억 원으로 투자유치 누계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경남투자청 조직도]



출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giba.or.kr/fe/inform/organ/NR\\_index.do](https://giba.or.kr/fe/inform/organ/NR_index.do))

<그림 6> 경남투자청 조직체계

## ▶▶ 대전투자청(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 대전광역시시는 대전투자청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금융중심은행으로서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당초에는 대전투자청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역 내 벤처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투자금융주식회사로 설립 추진 중임

- 대전투자금융은 시 출자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자본금 500억원은 대전시가 전액 출자할 계획임
  - 민간자금 1,000억원은 자금 운용의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모펀드 자금 형태로 조성하며, 자금은 설립 후 5년까지 3,000억원을 운용하고, 오는 2030년에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투자와 나노 반도체, 항공우주 등 정책 맞춤형 간접투자를 구분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 투자 방식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임
  - 직접투자(GP, General Partner·업무집행조합원)는 본계정과 모(母)펀드에서 투자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잠재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핵심전략(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정책 맞춤형 지역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 예정
  - 간접펀드(LP, Limited Partner·유한책임조합원)는 지역의 민간 투자사와 협력을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게 적극 투자할 예정
- 현재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B증권, 고려신용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금융회사, 대전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계룡건설 등 대전지역 우수기업 9개사가 참여할 예정에 있음
- 대전투자금융 설립으로 지역 중소기업 새로운 자금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와 저금리 여신 기능을 담당할 것임
- 대전시는 대전투자금융 설립으로 3,178억원의 생산유발, 1,27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 방향

### 1. 설립 방안

#### » 기본 방향

- 국내외 지역 단위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운영 방향을 보면 단순히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및 개발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과 유학생 등의 인재와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업무까지 포함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유학생 등을 포함한 이민, 금융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그림 7〉 전북 투자유치 전담기구 업무 영역

○ 투자유치 대상 및 투자 유형은 기존의 투자유치 전담기구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내외 기업 등 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보다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유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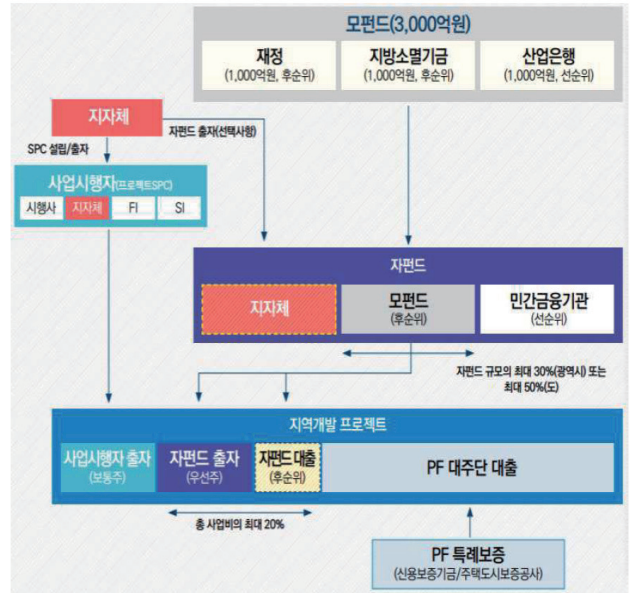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개발, 해상풍력발전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개발금융기관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 있어 새만금을 단순히 국내 경제 진흥 목적이 아니라 한중 협력형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등 초광역권 경제권 구축으로 위상을 확대할 경우, 인프라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정부 재정사업 특히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의 정부 펀드를 유치하는 업무까지 포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의 구조는 민간 투자 뿐만 아니라 정부 펀드 지원까지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제안해서 올라온 PF 사업들에 출자하는 방안으로 SPC 참여 및 자펀드 출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며, 빠른 자펀드 출자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자펀드를 운용하고 있어야 함

- 중앙정부의 모펀드 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 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전체적인 금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림 8〉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 구조

○ 해외 인재 유치는 런던 사례와 같이 유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 정주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안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고유 업무로 자리잡아야 함

» 설립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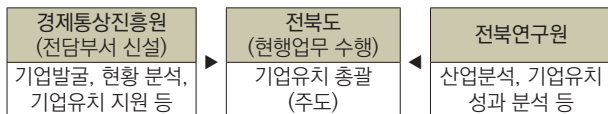
○ 현재 제안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업무는 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이 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개발공사가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바로 독립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려움

##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청 설립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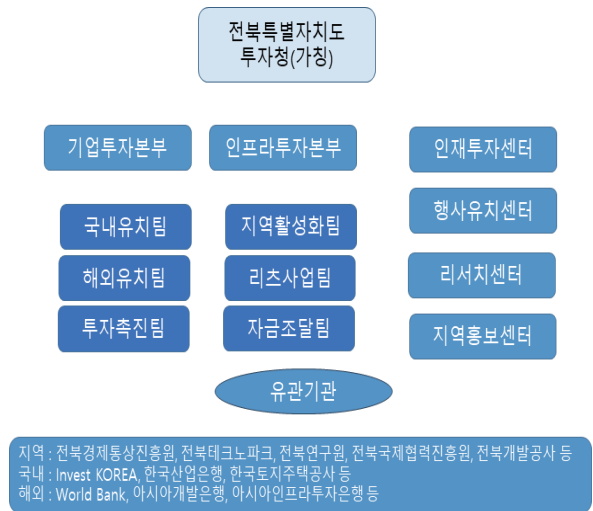
- 서울 사례와 같이 투자유치 전담기구 본연의 업무인 기업 유치를 1순위로 두어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투자유치 전담 부서를 두어 업무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전담기구는 기업 유치 및 지원,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를 별도로 기업 지원형과 프로젝트 지원형으로 분리하여 운용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를 운용 중에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에는 펀드 운용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음

### 2. 단계별 운영 로드맵

- 초기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내에 기업 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신설·운영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업무를 수행
  - 2024년 개최된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기구축된 글로벌 한인 경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기업 경영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연구원 등의 연구 기능을 활용하여 글로벌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치 가능 기업들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
  - 전북특별법의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와의 연계하여 국내외 기업들 대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추가적으로 전북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특례 조항들을 발굴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 유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유치 대상 기업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 유치와 관련한 업무 전문성을 확보한 이후에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까지 기능을 확대하되, 기관 규모 정도에 따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독립하여 자체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
  - 인프라 투자 업무는 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의 초광역 교통 인프라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및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업무로 자금 조달 방식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국제개발금융기관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직접 투자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로서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리츠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시설의 초기 투자금을 확보하여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AMC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한인비즈니스 대회나 경제인 모임과 같은 산업·경제 분야의 정기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 및 기획하는 업무까지 수행함
  - 한인비즈니스 대회 후속 관리 차원에서 매년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인비즈니스 대회에 참여하는 글로벌 한인 경영인들을 초청하여 지역 마케팅 행사를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행사(지니포럼)의 운영 대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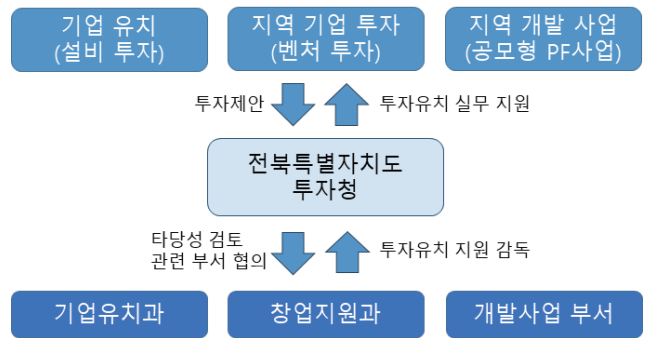
지역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개발공사 등  
 국내 : Invest KOREA,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해외 :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그림 9〉 (가칭)전북특별자치도 투자청 조직도

- 이와 같은 운영 로드맵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청(가칭)은 크게 2개의 본부와 4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그림 10〉 단계별 투자유치 전담기구 업무 강화 전략



〈그림 11〉 (가칭)전북특별자치도 투자청 업무 흐름도

### 3. 기대 효과

#### » 투자 관련 창구 단일화

- 지역으로의 투자 유형은 설비 투자 등과 같은 기업의 직접 투자, 지역의 벤처 및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 관광단지 및 역세권 개발과 같은 부동산 개발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짐
- 위와 같은 투자 관련하여 행정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수인계 여부에 따라 기존의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유치 활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음
- (가칭)전북특별자치도 투자청 설립으로 이들 투자유치 관련 기능들을 통합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인맥과 IR을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으로 국내외 기관 접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 기업 유치와 공간 개발의 연계성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기회발전특구, 투자진흥지구 등을 통해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접촉, MOU 체결 및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원하는 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간 개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 한인비즈니스대회 후속 효과 강화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한인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한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컨텐츠 발굴 및 행사 기획 주체가 있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청에서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글로벌 산업 동향 파악 및 기업 분석,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확보, 행사 콘텐츠 기획으로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있지만, 경제통상진흥원은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공모형 PF 사업 활성화

- 중앙정부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지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
- 실제로 2023년 기획재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펀드 출자를 통해 자원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2024년 5개 지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에 8개의 사업에 대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국가예산사업 추진 절차와 다르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공모형 PF 사업을 기본 사업 구조로 하고 있어 행정에서 준비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펀드(지역개발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SPC 설립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향후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청을 설립하여 PF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전문가 및 자본 유치 담당자를 채용하여 지역의 개발 사업에 지역활성화펀드가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및 컨설팅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 주도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안하는 공모형 PF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개발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임

### »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 자원 확보

- 투자청은 국내외 기업 접촉 뿐만 아니라 국제 개발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의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 금융 투자 생태계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산운용 및 대체투자 특화 제3금융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투자청을 통해 다양한 금융 투자 모델을 개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함으로써 금융 수요를 키울 수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집적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제3금융중심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3).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종합안내.
- 김묵한, 홍찬영, 황민섭, 유인혜. (2022).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관 현황과 서울시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 김양중, 김원년, 이충원. (2015).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내 외국인 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559-2568.
- 양다영, 황민영. (2024).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서울시 투자유치 정책 방향. 정책리포트 제392호. 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해외기업·자본유치 '서울투자청' 7일 출범, 2030년까지 300억불 투자유치전. 보도자료.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2015).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원. (2019). 외국인 직접 투자가 호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허정. (2023).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기업단위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OECD. (2023). Sub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nd Decentralisation in the OECD: Strategies and Institutions.
- Paul Lewis, Robert Whyte. (2022). The Role of Sub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World Bank Group.
- World Bank Group. (2020). Global Investment Competitiveness Report 2019/2020: Rebuilding Investor Confidence in Times of Uncertainty.
- OECD. (2019). Mapping of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London & Partners. (2023). 2024/2025 Business Plan.

# iSSUE BRIEFING

vol.319



발행인 이남호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